

“경기침체에 사장님 꿈 접어”...창업기업 감소 지속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연간 창업기업동향’ 발표 숙박·음식업 등 5년 연속 줄어...AI 기반은 증가세

지난해 창업기업 수가 약 113만 개로 전년 대비 4%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AI) 확산 영향으로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 등 기술·투자 연계 업종 창업은 늘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연간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은 총 113만556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만7344개(4.0%) 줄어든

수치다. 창업기업 수는 2020년 148만4667개사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41만7973개였던 창업기업은 2022년 131만7479개, 2023년 123만8617개, 2024년 118만2905개로 매년 줄어든다. 이에 증가부는 설 명절 등으로 1월 창업이 27% 하락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수출 강세와 내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0.2%가량 증가하면서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

기술기반창업은 22만1063개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6.9%에서 지난해 19.5%로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펀드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5.3% 확대되는 등 투자 자금 유입이 늘

면서 금융 및 보험업종 창업도 전년보다 25.9% 증가했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관련 세부 업종에서 모두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8657개) 중심의 창업이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25.9% 증가했다.

정보통신업(4만7556개)은 17.5% 늘었다.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5만6809개)은 5.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AI·디지털 기술로 인해 경영컨설팅 창업이 활성화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업(2만2836개) 창업은 30%에 육박하는 감소율을 보였다.

증기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수용용량 포화지역의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면서 발전업 창업이 줄었고, 외식산업 경기 침체 및 카페 시장 경쟁 심화로 음식점 및 주점업 창업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숙박·음식점업(13만7671개) 역시 외식산업의 경기 침체와 카페 시장 경쟁 심화로 11.8% 줄었다. 부동산업(10만5263개)도 건설경기 침체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대별 창업 동향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은 6.6%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30대 2.8%, 40대 4.8%, 50대 5.6%, 60세 이상은 2.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0세 이상 장년층의 창업은 전 연령에서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이번 통계는 국제청 사업자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개인회사의 법인 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동일 업종 재개업, 주태임대사업자 등록 등 법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일부 유형이 포함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

지역 첫 MZ 선호 브랜드 입점 광주신세계, EE플레이스 오픈

광주신세계에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MZ세대가 선호하는 패션·라이프 스타일 큐레이션 스토어인 ‘EE플레이스’가 첫 선을 보인다.

EE플레이스가 인기 스트리트 브랜드를 갖춘 만큼 광주신세계를 찾는 20대 고객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26일 EE플레이스에 EE플레이스가 문을 열었다.

해당 스토어는 서울 흥대점, 수원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이어 광주·전남 최초로 선보이는 매장이다.

약 79평(수정) 규모 매장에는 ‘오아이’, ‘탄산마그네슘’, ‘더바이탈하우스’, ‘워렌더스’ 등 20여개 브랜드 상품들이 입점한다.

EE플레이스는 패션·라이프 스타일 큐레이션 스토어로 급속 소재 선반과 깔끔한 조명으로 꾸며져 매장 곳곳이 사진 촬영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매장 이름인 ‘EE’는 ‘EXCEPTIONAL EYES’의 약자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다르게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EE플레이스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소비자에게 전하는 소통공간을 지향한다.

광주신세계 플래이스와 EE플레이스는 오픈을 기념해 사은품 증정 및 할인 프로모션을 펼친다.

오는 3월 5일까지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들에게 텀블러 등이 담긴 ‘EE 랜덤박스’를 선착순 증정하는 EE 럭키박스 이벤트 등이 열린다. 윤용성 기자 yoi1404@



HD현대삼호는 26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6 설계부문 동계 현장실습 폐회식’을 열고 두 달간 진행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HD현대삼호, 지역 대학과 인재 양성 ‘맞손’

설계부문 현장실습 폐회식...목포대 등 41명 참여

HD현대삼호가 지역 대학과 손잡고 조신 설계 인재 양성에 나서 눈길을 끈다.

HD현대삼호는 26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6 설계부문 동계 현장실습 폐회식’을 열고 두 달간 진행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을 비롯해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과 최부흥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과 교육생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폐회식은 성과 발표와 수료증 수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우수 실습생 11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회사

측은 실습 과정에서 설계 이해도와 과제 수행 역량, 협업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자를 선정했다.

이번 현장실습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설계실에서 진행됐다. 국립목포대 24명, 국립목포해양대 17명 등 총 41명의 조선해양공학 전공 학생이 참여해 조선 설계 전반을 체험했다.

교육 과정은 조선 설계 프로세스와 관련 이론을 비롯해 차세대 CAD 활용, 설계 라이브러리 구축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현직 엔지니어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설계 도면 작성과 검

중, 협업 시스템 운용 방식 등을 지도하며 현장 감각을 전수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전공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경험을 쌓고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부흥 목포해양대 총장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설계 업무에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은 “회사와 지역 대학이 함께 인재를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 조선 산업을 이끌 차세대 설계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한전, 지난해 영업이익 13조5248억원

전년대비 5조1601억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 효과

한국전력공사는 2025년 결산(잠정) 결과, 전년 대비 5조1601억원 늘어난 13조524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액은 97조4345억원, 영업비용 83조9097억원이다.

지난해 전기판매수익을 보면 판매량은 0.1% 감소했지만 판매단가는 전년 대비 4.6% 상승, 4조1148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자회사 연료비는 3조1014억원,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는 6072억원, 각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연료비는 원전, LNG 등 자회사 발전량 감소와 연료가격 하락으로 큰 폭 감소했다. 구입전력비는 구입량 증가에도 SMP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 자회사 해외사업매출은 1조4161억원 증가했고, 발전 및 송배전 설비 자산 증가에 따라 감가상각비 및 수선유지비가 6528억원 증가하는 등 2조5841억원 늘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95조5362억원, 영업비용 86조9962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조3733억원 증가한 8조540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연료가격 안정화, 2024년 요금조정 영향, 재정건전화 계획 충실 이행 등의 노력이 맞물린 결과

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특히, 한전은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등으로 1조3000억원의 구입전력비를 절감했다.

또 AI 활용 자산시스템(AMS) 고도화로 설비 유지보수를 효율화했고, 최적 설계를 통한 공사비용 절감 등으로 사업비 등 9000억원을 줄였다.

건설사업 공정 관리 및 투자사업 시 조정 등 사업조정(5000억원), 영업제도 개선과 비핵심 자산 매각(9000억원)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했다. 다만 이같은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206조원의 부채와 130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이 남아있다. 하루 이자비용으로만 119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차입금 이자지급과 원금상환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 증가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해 미래 투자에도 매진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구입전력비 절감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꽃피는 봄에도, 어르신들의 밥상엔 여전히 찬바람만 불립니다.

텅 빈 냉장고, 다 쉬어버린 김치, 말라붙은 라면 국물.

월 2만원, 정기후원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전국 26개소 무료급식소 운영

#독거노인 기초생활 개선지원



-2025 대통령 표창 수상단체-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KOREA SHARING FEDERATION

후원 문의 1811-1004